

2025 을사년 안동태사묘 추향제 엄숙하게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장우진)가 주관하는 “2025 을사년 태사묘(太師廟) 추향제(秋享祭)”가 10월 5일(음력 8월 14일)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추석 하루 전날인데다 연휴가 이어져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 참제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권혁창 대중회전례위원장, 권기갑 성균관위원장,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안동시지회장,

권오신 좌요공파회장, 권광택, 김대일, 김대진 경북도의원 3명, 김정동 안동김씨화수회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부장, 권오익 대중회안동사무국장, 권도현 전 청송교육지원청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분정례에 앞서 권세묵 수임(首任)은 인사말에서 “태사묘라고 하면 안동의 삼성(三姓)과 관련이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오늘 바쁘게도 불구하고 태사묘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했다.

수임의 인사말이 끝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태사묘 숭보당(崇報堂) 마루 위에

서 권재규(부정공파) 집필자가 분정례(分定禮)를 시작, 초헌관 권세묵(權世穆), 아헌관 장동섭(張東燮), 종헌관 김현구(金鉉求), 집례 권순갑(權淳甲), 축관 권도현(權渡琬), 김은현(金恩顯), 장영수(張永守) 등을 40여분에 걸쳐서 집필하였다. 분정례가 끝나자 곧이어 숭보당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하였다.

헌관, 집례, 축관들은 숭보당 방과 마루 위에서 관복(冠服)으로 갈아입은 뒤 초헌관을 선두로 삼성의 후손들이 뒤를 따라 태사묘우로 이동하였다.

권순갑 집례의 창홀(唱笏)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태사묘우로 들어가 분향 헌작하고 이어 축관 3명이 각자 자신들의 시조 위패 앞에서 다 같이 축을 낭독하는 등 1시간에 걸쳐서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한 후 숭보당 잔디밭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촬영이 끝나자 숭보당 마루 위에서 헌관, 집례, 축관, 재유사, 참제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복례를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순갑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장우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추석 명절이라 바쁘게도 불구하고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주회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값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5년 북야공파 종무위원회 개최



북야공파(회장: 권영상)는 지난 10월 24일 11시 안동시 갑나루길 11 파종회관에서 2025년 종무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종무위원 등 10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석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무위원회회의는 식전 공연과 내빈소개, 개회, 국민의례, 시조 및 파조단소 망배, 상응례, 회장인사, 종무 및 재산현황보고, 안건처리, 북야공파지 편찬사업 추진계획 설명, 당부 및 협조 사항,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회의에 앞서 축친간의 화합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하여 식전공연을 준비하였는데, 연주자 권찬순 종무위원은 색소폰으로 “떠나면 고향”, “아미세”, “사랑이 비를 맞아요”, “둘려줄 수 없나요” 등 4곡을 연주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내빈 소개는 권영상 회장을 비롯한 대중회 권영창 회장, 부산 권길상 회

장, 권계동, 권기호, 권세묵 고문, 권오극 자문위원, 권혁창 대중회 제례위원장, 그리고 서울 권영훈, 부천 권기석, 부산 권영현, 대구 권태욱, 강릉 권현주, 함천 권영욱, 산청 권영범, 영주 권혁태, 봉화 권양호, 예천 권수동, 영천 권대은 등 많은 부회장단과 종무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권영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사상 유례없는 산불과 가뭄, 열대야 등 어려움 속에서도 꽃같이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봄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고 하였다. 또한 현안 사업으로 북야공파지 편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의 역사를 지키고 후세에 뿌리를 전하는 막중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적극적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대중회 권영창 회장은 격려사에서 시조 태사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능동제사 주변에 수목식재 등 환경을 새롭게 하였고, 앞으로 영정을 만들고 영정각을 짓고, 권문의 1100년사를 발간하는데, 북야공파가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안건처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파조부군 추향봉행 건으

로 도유사 영주출신 판서공계 권영표씨 등 5집사와 재유사 네 분을 모두 선정하고, 추향예산(안)은 45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북야공파지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권갑현 추진위원장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회의서류에 있는 세가지기록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문종별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여 빠른 추진을 당부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고 특강을 하였는데, 강사는 파종회 권오주 부회장으로 “안동권씨 종시(宗是) 실천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종시 뜻과 실천방법, 사회 구성원으로 모범이 되는 길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파종회 권기석 부회장과 권영훈 부회장이 선물한 공구세트 한점씩을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한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과 찜쌀떡을 곁들여 점심을 맛나게 하고 기분 좋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북야공파 사무국장 권석순



안동권씨능우회 10월 격월 회의 개최



안동권씨능우회(陞優會 회장 권오관) 주최 10월 격월 회의가 10월 14일 오후 6시 안동시 태사길71(옥정동) 안동회관에서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중익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

묘소 망배에 이어 권오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웠고 요즘은 비가 자주 내려 을씨넵스럽다”며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현 권기락 사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국장직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자 차기 사무국장으로 선임될 권중익 국장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 권오관 회장은 능우회에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가 들어있는 검은 가방을 권중익 국장에게 인계하자 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권중익 국장은 “능우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능우회 제16대 임원개선이 오는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회장에 권오갑, 사무국장에 권중익을 각각 선임할 계획이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봉사하게 된다.

회장 인사말과 사무국장 인계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이중 안동시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이 인사차 들려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였다. 회원들은 정담을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하게 사는 법

손안의 세상보다 마음속의 세상을 더 잘 다루는 게 진짜 스마트다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야공파)



묻지 않는다. 조용히 산책하거나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진짜 충전이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자주 끊겨 있다. 진짜 연결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다. 그 주파수가 맞게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다시 이어진다.

5.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한 나

스마트폰은 계속 진화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따뜻한을 원한다.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설레지만, 정작 마음의 업데이트는 놓치기 쉽다. 스마트한 인생은 최신형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낡은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다. 어제의 서운함을 지우고 오늘의 고마움을 저장하는 일, 그게 마음의 기술이다. 손안의 세상보다마음속의 세상을 더 잘 다루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진짜 현자다. 결국 스마트함의 완성은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된다.

■ 맺음말

스마트폰은 손에 쥘 기계지만 인생은 마음에 쥔 방향이다. 화면을 켜는 대신 마음을 여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해상도가 달라진다. 손가락으로 넘기는 뉴스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하루가 더 중요하다. 스마트한 삶은 새 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기계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는 세상일수록, 나는 더 나답게 느끼고 더 깊이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국나를 지키는 길이자,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된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마트폰보다 내 마음이 더 스마트해지길, 그리고 그마음이 또다른 세상을 밝히길 바란다.

■ 메타인지 질문

“나는 오늘 스마트폰보다 내 마음을 더 잘 관리했는가?”

2025 을사년 제11차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가 주최하는 “2025 을사년 제11차 파조(派祖) 추향제(秋享祭)”가 10월 11일(음력 8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 정자에서 참제원(參祭員)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최근 2- 3일 마다 한 번씩 비가 내렸으나 이날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를 보였다.

이날 일원정 앞에서 분정례(分定禮)는 집필자 권기영(權奇嶸)이가 초헌관 권오인(權五仁), 아헌관 권영건(權寧健), 종헌관 권오기(權五基), 축관 권중대(權重大), 집례 권기영이 각각 담당하였다. 5명의 헌관(獻官)들은 검은 색 제복(祭服)과 갓을 쓰고, 제례위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참제원은 평상복(平常服)과 유건을 쓰고 1시간 30분가량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권기영 집례가 한자로 홀기(笏記)를 창홀(唱笏)하면 권태욱 사무국장이 알아듣기 쉬운 우리 말로 해석해서 제례의 순서를 쉽게 진행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오인 도유사(都有司)는 인사말을 통해 “농사철인 요즘 바쁘게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모든 축친들은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욱 사무국장은 서울의 권태복 대중회상임위원(부호장공파)이 바쁜 일정으로파조 추향제에 참석을 못하



여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다고 보고했다. 권 상임위원은 부호장공파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10만 - 20만원의 찬조금을 내기도 했다.

오늘 파조 추향제때 부호장공파 관내 6개 소 문중이 80만 원, 개인 13명이 찬조금을 내는 등 모두 200여만 원의 찬조금을 접수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시원한 일

원정 마루 위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권헌종 파종회장은 내년 2026년도 도유사로 선임될 권영건 고문에게 망기(望記)를 전달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29차 9월 격월 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숙동) 제29차 9월 격월 회의가 9월 26일 오후 6시 안동시 평화9길 46-13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한정식’식당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등 세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 권영준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11명이었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숙동 친목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특별한 토의 안건은 없었으나 권문 발전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논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친목회에 입회한 권영준 동정공파회장(70. 연합철강 대표)은 인사말에서 “많이 부족한 저가 권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친목회에 들어와



서 많이 배우고 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봉사 하겠다”고 입회 소감을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서 많이 배우고 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봉사 하겠다”고 입회 소감을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